



# ‘전자정부·기업 리포팅SW 강자’ 국내 넘어 해외서 큰 꿈 펼칠 터

**메트로가 만난 기업**  
포시에스 박미경 대표

“고객의 성공이 바로 회사의 성공이다.  
회사 이름엔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for client success(고객의 성공을 위해)’의 줄임말 FORCS라는 사명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말로는 ‘포시에스’라고 읽는다.

박미경 대표는 “외국인들은 우리 회사 이름을 ‘포스’로 읽더라”라며 웃었다.

힘, 영향력 등의 뜻을 지닌 ‘포스(force)’도 나쁘진 않다. 포시에스에게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힘’도 느껴진다.

포시에스는 코스닥 상장사 중 남편이 끌고, 아내가 미는 대표적인 부부회사라 더욱 그럴 수도 있다. 박 대표보다 7살 연상인 남편 조종민 회장은 경영을 총괄하고, 아내 박 대표는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겸하고 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다. 회사를 세우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박 대표가 프로그래밍, 조 회장이 영업을 하며 안팎에서 역할을 나눠 맡기도 했다.

박 대표와 조 회장은 함께 다니던 IT회사에서 만나 결혼하고 회사를 설립한 창업 동지다. 그때가 1995년이다.

당시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외산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포시에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 더해 리포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매일 밤을 새면서 작업하니 6개월 만에 제품이 만들어지더라. (웃음)이름은 오즈의 마법사 처럼 리포트를 쉽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오즈(OZ)’로 지었다.”

박 대표의 설명이다.

리포팅·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대표기업 포시에스는 이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창업 후 2년만에 IMF가 찾아왔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포시에스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빚쟁이에 시달리고, 무너지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

박 대표는 “다른 회사들이 문닫는 것을 보면서 사업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을 지지 않아야

했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때부터 부채 없이 회사를 꾸려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회상했다.

올해로 스무살이 훌쩍 넘은 포시에스가 지금까지 ‘금융부채 제로(0)’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것은 사업 초기의 이같은 간접 경험이 큰 공부가 됐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기도 기보단 어떤 일이 있어도 매출을 올려 임직원들을 먹여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박 대표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것이다.

산망도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힘을 보탤다.

IMF라는 큰 파도를 넘은 포시에스도 그동안 닦은 노하우로 관련 분야에 뛰어 들었다.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의 홈택스 등에도 포시에스의 노하우가 들어갔다. 지금도 전자정부 시스템의 절반 가량은 포시에스의 기술이 쓰인다. 2006년에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난립하면서 외산제품만

달성했다. 회사를 세운 후 꼭 15년 만의 일이었다.

관련 제품도 꾸준히 진화해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리포팅 솔루션인 OZ 리포트와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OZ e-폼,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 e폼사인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6월 결산법인인 포시에스는 2017년 당시 128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6월 기준)엔 180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반기 매출이 114억원을 찍으면서 오는 6월까지의 결산 매출이 작년 실적을 갈아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시장에서 추가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다볼 곳은 글로벌 시장이더라. 그래서 일본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현지와 주변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박 대표의 포부다.

한국에서 최대한 매출을 올려봐야 200억~300억원 시장이어서 목전에 바짝 다가선 포시에스가 앞으로 쳐다봐야 할 곳은 나라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자 목표다. 포시에스가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박 대표는 최근 일을 저질렀다. 한국여성벤처협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한 것이다.

“여성기업인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나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는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다. 협회 여성벤처들의 스케일업과 여성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적극 지원해 이같은 단점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 대표는 여벤처에서 수석부회장을 4년간 하면서도 회장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회장직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오즈의 마법사처럼 리포트 쉽게 만들어  
솔루션 개발까지 밤새워 6개월 걸렸다  
금융부채 ‘0’ 기업 꿈꾸며 유지·성장 중  
한계 있는 국내시장 넘어서 해외 공략을

사업하면서 ‘죽음의 계곡(데스 벨리)’을 수차례 마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포시에스도 마찬가지였다.

“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못한 때가 있었다. 정말 못할 짓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견뎌냈고, 결국 회사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그 후엔 단 한 차례도 월급이 밀리는 일이 없었다. 감사한 일이었다.”

박 대표가 힘들었던 때를 다시 추억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를 맞았다. 정부의 행정 전

취급하던 회사들이 또 다시 줄줄이 무너졌다. 다행히 매출의 절반 가량을 자사 제품으로 채운 포시에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연구개발에 힘쓴 효과가 2009년부터 서서히 나타나더라. ERP(기업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개발부터 영업망, 비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도 20~30%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포시에스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을

## “CU상품, 요기요로 주문해 받아보세요”

## 명품가구 멀티샵 ‘에이스에비뉴’ 부산에 오픈

## 아주산업-베트남 ‘민득’ 콘크리트 파일 제조 등 경영효율 극대화 MOU

물류 스타트업 ‘부릉’ 배송 서비스

편의점 상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는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통해 편의점 CU(씨유)의 상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배송 서비스는 배달 앱 ‘요기요’를 통해 주문과 결제가 진행되며, 모든 배송은 메쉬코리아의 ‘부릉’이 맡는다. 배달 앱 ‘요기요’에 접속해 1만원 이상 구매 시 가까운 CU매장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배송료는 3000원이다.

현재 도시락, 디저트, 튀김류 등 200여개 상품이 배달 가능하며, 앞으로 생활용품 등까지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편의점 배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적화된



/CU(씨유)·부릉(VROONG)

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가맹점주의 운영 편의성 향상과 신속한 전국 서비스 전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메쉬코리아는 수도권 내의 CU 직영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5월에는 가맹점까지 전국 규모로 실시간 배송 가능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에이스침대, 720여종 가구 매장 구성

에이스침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최고급 명품가구 멀티샵 ‘에이스에비뉴(ACE AVENUE)’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에이스에비뉴는 2008년 에이스침대가 야심차게 선보인 프리미엄 가구 편집샵이다.

서울점, 대전점, 대구점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에이스에비뉴 부산점은 연면적 2802㎡, 5층 규모로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전체를 각 브랜드별 컨셉에 맞게 매장을 구성했으며, 720여종의 수준 높은 가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래식한 리에디션 시리즈부터 동시대 디자인

너와 협업으로 만든 제품까지 넓은 디자인 스펙트럼의 가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2층에는 유쾌한 디자인이 특징인 알플렉스(Arflex)와 유서 깊은 원목 가구 브랜드 리바(RIVA) 1920, 3층에는 소재의 조합이 감각적인 박스터(Baxter)와 목재의 조형성을 강조한 포라다(Porada)의 가구들이 있다.

4·5층에는 신소재로 접근하는 크리스탈리아(Kristalia), 모던한 디자인과 색감이 뛰어난 MD하우스, 대표적인 안락의자 브랜드 스트레스리스(Stressless), 에이스침대까지 다양한 가구들이 구비돼 있다. 대부분의 가구들은 가족의 컬러와 종류를 자신의 습관과 공간 분위기에 맞게 선택·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승호 기자

아주산업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북부 거점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 업체인 민득(Minh Duc)과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즈니스 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주베트남은 남쪽 지역의 거점인 호치민에서 종합건설시공사를 목표로 콘크리트 파일 제조, 파일 향타업(파일을 지반에 박는 작업) 및 기초 토목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양사는 남과 북의 지리적 시너지를 활용해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